

후계농업경영인 사회복무제도 편입,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의
소중함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농업·농촌을 지키는 시작입니다.

경기도 여주에서 야콘과 마, 고구마 농사를 짓는 박주원씨(29세)는 한 겨울에도 야콘 종자를 파종할 포장 준비에 한창이다. 그는 충북대학교 심리학과를 다니다 적성에 맞지 않아 중도하차하고 한국농업대학을 마친 후 고향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2006년 2월에 한농대를 졸업하고 이제 며칠 후면 3년간의 산업기능요원 복무를 마치게 된다. “한농대를 가게 된 동기에 대해, 솔직히 농업에 뜻도 있었지만 군복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털어 놓는다.

어엿한 4년제 국립대를 다니다 그만두고 농사를 짓겠다고 내려 온 주원씨에 대해 마을 어르신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았다고 한다. ‘오죽하면 젊은 게 농사지러 왔겠어!’ 하는 식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젊은나이에도 불구하고 비지땀을 흘리며 농업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게 되자 어르신들의 시선이 차츰 바뀌었다고 한다. 이제는 버스가 자주 없는 농촌에서 농사일로 트럭을 몰고 오가다 지나가는 마을 어르신들을 자주 태워주게 되자 마을의 귀여움을 독차지 하고 있다. 박주원씨는 농업을 직업으로 둔 것이 어느 직장에 다니는 것보다 부럽지 않다고 한다. 졸업 후 3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땅은 땀 흘린



1월말에 산업기능요원을 마치는 박주원 씨.

한농대 졸업생 담당자와 대화중인 박주원씨

만큼의 대가를 되돌려 준다’는 진리를 깨달았다고 한다. “흙과 물과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 받은 직업인지 몰라요” “어떤 직업도 농업을 따라 올 수 없다고 봅니다” 박주원씨의 농업에 대한 애착과 생각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박주원 씨는 후계농업인 산업기능요원제도 폐지에 대해 강한 어조로 대체복무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봅니다” “식량에 문제가 생기면 자동차나 휴대폰 따위와 비견할 수 없는 거죠. 농촌에는 상대적으로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가 유지되고 있어요. 또한 생산 활동 자체가 환경을 지키는 그런 게 농업 아닌가요?” “이렇게 소중한 가치를 이어갈 사람을 양성하는 건 국방만큼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체복무 제도가 없어지면 후계농업인력 육성에 큰 문제가 생길거구요. 식량, 환경, 농촌전통문화 등 공익적 가치를 포기하는 거라고 봅니다.”

우리 나이로 30세를 넘어버린 박주원 씨에게는 한 가지 큰 과제가 남아 있다. 이 시대의 농촌 총각

들이 공통으로 겪는 문제다. 박주원씨는 “박선생님이 한농대 학생 중 참한 여학생 소개시켜 주지 않겠냐!”며 진담 반 농담 반 섞인 너스레를 떠다.

“후계농업인의 대체복무제도, 꼭 있어야 합니다.”

“대체복무 같은 확 끌리는 게 있어서 농사를 짓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는 새 농촌에 눌러 앉아 농사 짓게 돼요. 후계농업인의 대체복무제도 꼭 있어야 합니다” “애기 아빠가 한국농업대학 나와서 농촌에 정착하는 데에도 대체복무제도가 정말로 큰 도움이 됐습니다” 경기도 안성에서 포도를 재배하는 백신혁씨(26세)와 결혼해 7개월 된 아들을 둔 노경미씨의 말이다.

백신혁 씨는 2004년 2월 한국농업대학을 졸업하고, 3년동안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를 마치고 아버지와 함께 유기농 포도를 재배하고 있다. “차라리 후계농



백신혁 씨 가족

아버지와 직접 돌이 지은 포도 하우스

업인 산업기능요원 하는 것보다 군대 가는게 더 낫습니다” “창업자금 5천만원 받아서 하우스를 지려는데, 업자에게 맡기려니 1억원 달라고 하더군요, 궁여지책으로 1,800평 시설포도 하우스를 아버지하고 들어서 지었습니다. 파이프 나르다 보니 어깨가 다 짓물러 터졌습니다” “창업한다는 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줄 몰랐습니다. 군대갔다 오는 게 오히려 훨씬 쉬웠을 겁니다”

“환갑을 바라보는 분이 동네에서 제일 젊은 사람”

백신혁 씨의 포도하우스가 있는 동네에는 얼마 전 국내 모 대기업에서 골프장과 연수원을 설립하면서 제법 많은 농가가 모두 떠나고 이제 10여 농가만 남아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젊은 분이 환갑을 바라보는 50대 후반이라고 한다. 안성시 ‘4-H연합회’ 감사를 맡고 있는 백신혁씨는, 후계농업인에 대한 대체복무제도가 없다면 ‘4-H회도 운영이 어려워 질 것’ 이고, ‘한농대 지원 학생도 많이 줄

어 들 것'이며, 무엇보다 '농사지를 사람이 없을 것'으로 우려한다.

백신혁 씨 아버님 백이남씨도 한 수 거든다. "사회가 농업분야에 너무 관심이 없어요. 군 혜택 없앨 것이 아니라 농업활성화를 위해 더 늘려야 합니다" "후계농업인 사회복무제도 편입여부는 '우리사회가 농업·농촌에 대해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바로미터'라고 봅니다" 백이남 씨는 자신의 가업을 이어 유기농 포도 재배를 결심한 아들이 대견하고 자랑스럽다. 30여년 뒤에 하얼이(손자)가 포도농사를 이어 갈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사회분위기가 농업의 소중한 가치를 인정하고, 자연스럽게 손자가 가업을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본다.

“복무마치면 26세인데 다른데 취직하려 해도 힘듭니다.”

경기도 양평에서 한우와 느타리버섯 재배를 하고 있는 최요환씨(25세)는 며칠 전 저녁 해질 무렵에 긴급한 전화를 받았다.



농업활성화를 위해 더 늘려야 한다는 생각

스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 최요환 씨

길가에 동네 할머니가 쓰러져 있다는 제보를 받고 쏘살같이 달려가 보니, 집에서 약 1.5km 떨어져 있는 길가 논둑 전봇대 옆에 70세가 넘는 동네 할머니가 만취상태에서 쓰러져 계셨다. 현장에 도착한 최요환 씨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할머니를 본 순간 문득 큰 일이 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요환 씨는 얼른 달려가 할머니를 부추겨 안았다. 다행히도 할머니는 숨을 쉬고 계셨고, 요환 씨는 자신의 트럭에 할머니를 태우고 집에 모셔다 드렸다. 1월 엄동설한에 하마터면 큰일을 치를 뻔 한 사건이 아닐 수 없었다. "119에 연락하지 않고 왜 요환씨에게 연락이 왔느냐?"고 묻자, "119가 지평면에서 연락받고 오려면 15분이상이 걸리는 데요! 그것도 동네 논둑 길을 잘 몰라서 더 늦을 수도 있어요." "저는 동네에 사니까 2분 안에 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동네에 급한 일이 생기면 119보다 젊은 저를 먼저 찾기가 일쑤예요."

후계농업인 사회복무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 "군복무 마치고 나면 우리나라로 26살인데, 산업기 능요원하면서 농사짓다가 그 나이에 다른데 가려해도 갈 데가 별로 없어요" "자연스럽게 농업인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밖에 없는 거죠.”라고 역설한다.

동네에서 제일 젊기도 하지만, 아버님이 동네 이장을 맡고 계신 관계로 최요환씨는 이래저래 동네의 대소사에 열일 견어 제치고 앞장서지 않을 수 없다. 자신 스스로도 양평군 4-H연합회 임원만 5년(현 부회장), 경기도 4-H연합회 임원도 3년째 맡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6시 내고향’에 출연해 방송을 탄 관계로 최요환씨는 동네에서 인기가 더욱 높아졌다. 다들 어렵다고 하지만 맘껏 내 뜻을 펼칠 수 있고 노력만 하면 소득도 짝짤한 터라 농사짓게 된 것이 오히려 자랑스럽다는 최요환씨의 새해 목표는 결혼이다. 젊은이가 모두 떠난 농촌에 정착해서 동네 어른들을 가족처럼 모시며 살고 싶은 뜻을 이해해 줄 배우자가 있을 것으로 믿으며, 최요환씨는 깨끗하게 고향을 지킬 것을 다짐한다. 2006년에 한국농업대학을 졸업하고 오는 6월에 산업기능요원을 마치게 되는 최요환씨는 “떠나가는 농업·농촌과 고향을 지키는 것도 나라를 지키는 또 다른 방법이 아닐까요?”라고 반문한다.

“정부, 산업기능요원제도 폐지하고 사회복지제도 시행”

최근 정부는 2012년부터 산업기능요원제도를 폐지하기로 하고, 현역 대상자 중에 군복무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로 공중보건의사, 공익수의사 등이 활용할 수 있는 ‘사회복무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후계농업인은 지금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군복무를 대신할 수 있으나, 2012년부터는 현역 복무를 하게 되어 후계농업인력 육성에 큰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농민단체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후계농업인의 대체복무 제도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아기 울음소리가 그친 지 오래인 농촌에 그나마 젊은이들을 유인할 수 있던 계기가 된 것이 이 제도였기 때문이다. 물론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복무를 마친 젊은이 모두가 농촌에 정착하는 것은 아니다. 결혼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일 것이고, 또한 영농기반이 넉넉지 않은 사람에게는 젊은 나이에 창업을 한다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천한 취급을 받는 농업과 농촌에 대한 곱지 않은 사회적 편견도 한 몫을 하고 있을 것이다.

아기 울음소리는 커녕 50~60대 노인이 마을에서 막내 취급을 받아야 하는 세태에서 20~30대 젊은이가 농촌에 정착해 고향을 지키며 농사를 짓겠다는 소식만큼 반가운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이런 젊은이들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대체 복무가 아니라 그 이상의 정책적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FTA 등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에 따라 최대 피해자인 농업과 농촌에 대해 이 사회와 국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수백억원의 정책자금 지원보다 한 사람의 유능한 젊은 농업인을 양성하는 일이 더 중요한 성공하는 농정의 시작은 아닐까? 이러한 면에서 후계농업경영인의 사회복지제도 편입은 성공하는 농정의 시작이며, 우리 농업·농촌을 지키는 시발점이라고 봐도 좋을 것이다. ☺